

# 내 건 유일해, 그리고 특별해

NFT가 선사하는 인생의 보물

무한 복제가 가능한 이미지 파일로 이미지의 포화 시대가 도래했다. NFT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영혼까지 복제하기란 불가능하다. 기술적으로 서술하자면, 배타적인 저작권은 훔쳐갈 수 없다는 것. 기술과 예술 사이에서 나만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세상의 첫 번째 모습은 바로 NFT이다.

**NFT: 내 건 유일해. 그리고 특별해.**

온 세상 통틀어 나만 가졌으니까.

**FT: 원 소리아? 결국에는 네 거나 내 거나 다**

똑같아. 돈은 그저 돈일 뿐!

열 살 무렵의 일이다. 난생처음 용돈으로 만 원 지폐 한 장을 받았다. 물론 어른들이 보기에 큰돈은 아닐 거다. 하지만 그때에는 내 소유라는 뿌듯함에 보고 또 보고, 만지고 또 만졌다. 얼핏 보면 모르고 지나칠 문양도 한쪽에 살짝 그려 넣었다. 그런데 때가 타거나 구겨지거나, 혹은 아예 찢어지면 어떡하지? 아니면 누가 슬쩍하면? 결국 고민 끝에 결정했다. 은행에 입금하기로. 창구에서 기념사 진도 남겼다. 담당 직원은 환하게 미소 지었고 10년이 지났다. 이제 나도 어른, 그 지폐를 기념 액자로 만들어 내 방에 걸어놓고 싶었다. 그래서 은행에 방문, 출금 의사를 밝혔다. 설레는 마음, 오랜 만이다. 담당 직원이 만 원권 지폐를 건넸다. 내 표정, 이내 굳었다. 이걸 뺏겼던 신권 아닌가? 난생처음 경찰서에 갔다. 점잖게 타이른다. 학생, 공공장소에서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물론 맞는 말이다. 아까는 정말 난리도 아니었다. 아니, 10년 전에 말긴 내 지폐를 줘야지. 돈이라고 다 똑같은 돈인가? 이러자고 내가 은행에 말긴 줄 알아? 그래, 본격적으로 미아 찾기 시작이다. 미안하다. 그동안 널 잃은 줄도 모르고 인생 정말 바보처럼 살았다. 그런데 만 원 입금하고 만 원 출금했으면 그게 뭐가 문제지? 문제다. 최소한 당사자인 상비니에게는. 그가 믿고 건넨 만 원짜리 지폐는 그의 손때가 묻은 그만의 고유한 유물이다. 비유컨대, 내가 그린 작품을 보관소에 맡기고 다시 찾는데 황당하게도 남의 작품을 돌려준다. 내 작품 내놓으라며 격렬하게 항의했지만, 정확히 같은 가격의 작품이라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며 직원이 오리발을 내민다. 와, 부아가 치민다. 이러다 내 명에 못 살겠다. 여러분, 여기서 상비니의 문제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네, 저기 안경 쓰신 분, 말씀해주세요. 아니, 눈썹 짙은 분이요.

“제 생각에 상비니는 바보라서요.”  
“키득키득.”  
그럼, 눈썹 짙은 분이요?  
“상비니가 말긴 돈이 작품이라면 공감이가긴 해요.”  
그런데 그가 말긴 돈은 작품이 아니잖아요?  
“그걸 어떻게 단정해요? 최소한 그에게는 작품이 맞지 않나요? 결국 다 마음먹기에 달린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런데 아쉽네요. 그에게는 그 지폐가 교체 불가능한 유일무이한 작품이지만, 은행 측에는 그저 교체 가능한 똑같은 화폐일 뿐이잖아요?  
여기서 전자는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 토큰), 그리고 후자는 FT(fungible token, 대체 가능 토큰)와 통하네요. 자, 이제 말투 바꿉니다.

## 기술과 결합해 완성한 예술의 고유성

NFT는 신조어다. 이는 이미지나 동영상, 음악, 혹은 기념품 등의 특정 디지털 파일을 블록체인의 기술과 1:1로 연결하며 탄생한다. 이때의 대표적인 장점 네 개, 다음과 같다.  
첫째, 족보가 확실하다. 즉, 이 기술에 따르면 저작과 유통 과정 등에 일련번호가 부여되며 거래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그래서 도무지 사기 칠 수가 없다. 반면에 실물 작품은 종종 위작 여부가 문제시된다. 둘째, 소유권이 보장되고 안정성이 높다. 아무리 복제되어도 원본은 단 하나다. 그리고 디지털 파일기에 물리적인 파손이 불가능하다. 이를테면 아무리 백화점을 들락날락해도 내가 건물주는 아니다. 마찬가지로, NFT 소유자와 똑같은 파일을 소유하더라도 내가 그 파일의 주인은 아니다. 반면에 실물 작품은 도난당하거나 낡고 망가질 수 있다. 셋째, 비대면 시장에서 효율적으로 거래된다. NFT는 여러 거래소에서 실물 작품처럼 거래가 가능하다. 그런데 실물이 아니기에 직접 볼 필요도 없고,



물리적으로 양도되지 않기에 훨씬 간편하다. 따라서 주식처럼 거래 속도가 빠르다. 반면에 실물 작품은 부동산처럼 거래 속도가 느리다. 그때그때 물리적으로 검수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도 있고. 넷째, 여러모로 예술계를 확장한다. 미술 시장의 경우, 예전에는 유화로 그린 실물이 컴퓨터로 그린 이미지 파일보다 통상적으로 금전적인 가치가 높았다. 하지만 NFT를 거래하는 비물질 시장이 열리자 이제는 그래픽 디자이너가 창작한 이미지 파일이 인정받기 시작했다. 더불어 소리나 동작, 혹은 예술로 여겨지지 않던 영역 또한 거래 가능한 작품으로 변환되었다. 그리고 거래 내역이 끝없이 기록되는 특성상, 설정에 따라 자신의 작품이 거래될 때마다 계속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누구나 작품을 등록하고, 해당 커뮤니티에 자신을 열렬히 홍보할 수도 있고. 결국 이론적으로는 누구나 창작자가 되고 무엇이든 작품이 되며 이에 따른 부가가치를 누릴 수 있으니, 이 정도면 예술 천국?

## 예술 혁명, 시대적 요청

그런데 과연 그럴까? 이제는 자본주의 시대, 신이 아니라 블록체인에 기반을 둔 세상 시스템이 '믿고 거래해'라는 식으로 이를 보증한다. 그리고 비대면 시대, 이는 획기적인 방식으로 '내 것만 진짜'라는 소유욕과 과시욕을 충족시킨다. 한편으로, 최근의

유행은 거품일 가능성이 크다. 양적 완화 정책으로 돈이 풀리니 '지금 한탕'이라며 투기 세력이 요동치기에. 하지만 앞에서 말했듯 혁신의 가치는 엄청난데. 수많은 굴곡을 거치며 결과적으로 살아남는다면 그동안의 폐쇄적인 시장을 극복하고 문화 전반을 발전시키는 데 나름대로 이바지하지 않을까? 여기서 번치 않는 진실 한 가지! 자고로 예술은 객관적인 '겉모습'보다는 주관적인 '속생각'이 중요하다. 개념적으로 전자가 자신의 소속을 규정하는 '명사적 정의'라면, 후자는 자신이 처한 '형용사적 상태', 혹은 이를 유지하려는 '동사적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비유컨대, 역사는 잘생긴 외모보다 고매한 신념과 행동을 높이 산다. 혹은, 문자 자체보다 행간의 의미가 중요하다. NFT도 마찬가지다. 이미지 파일은 무한 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는 그저 겉모습일 뿐, 그렇다고 '영혼'을 복제할 수는 없다. 이를 기술적으로 말하자면, '배타적인 저작권'을 훔쳐갈 수는 없다. 내가 저자인데 남들이 내 글을 그대로 가져다 쓰면 그저 도용일 뿐! 물론 독서나 인용은 무한 자유다. 하지만 저자는 영원히 나다. 그렇다면 '영원한 상태'가 곧 '영혼'? 이를 위해 NFT는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 창작자뿐만 아니라 소유자에게도 소위 무소불위 '영혼'의 가치를 부여한다. 물론 소유자는 자신의 결정으로 이를 매매할 수 있으니 여기서 '영혼'은 내 집을 등록하는 등기로 비유 가능하다. 아, 말 그대로 '영혼'을 팔 수 있구나. 한편으로 나는 내 몸짓이나 언행 등을 예술화하는 잠재력에 주목한다. 즉, 작품으로서 완성된 조형적 결과물보다는 이를 형성하는 상징적 과정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예컨대, 2006년 3월 22일에 트위터 창립자인 잭 도시 Jack Dorsey, 1976~가 남긴 생애 첫 번째 트윗은 바로 그의 판매 결정에

따라 2021년 3월 24일에 한 NFT 거래소에서 경매로 미화 2,915,835.47달러에 낙찰되었다. 물론 이와 같은 거래는 대중적인 파급력을 가지는 공인의 역사적인 행동과 집단적인 기대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한 사실은 직업인으로서의 예술가만이 작품을 만드는 시대는 지났다는 것이다. '예술품'이라는 배타적이거나 지엄적인 개념도 문제되고, 이를테면 그들의 행동 자체가 곧 예술적인 1인 창작자가 넘쳐난다. 결국, 관습적인 권위에서 탈피해 우리 모두 예술가 되기, 그리고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하기! 이는 당연한 '예술 혁명'의 시대적 요청이다. 그런데 평상시 우리 대부분의 손짓, 발짓, 눈짓, 말투는 종종 잊게 마련이다. 그러나 낭만적인 '개인주의'의 신화 아래 개념적으로 이들 모두는 유일무이한 NFT가 맞다. 즉, 아무리 작은 몸짓이라도 그 개인 인생에 의미가 있다면, 최소한 내 우주에서는 그야말로 역대급으로 중요한 작품 아니던가? 사방에 비슷한 게 아무리 넘쳐나도 내 건 단 하나, 나만 유일한 소유자다. 나는 나, 특별하고 소중하니까. 그렇다! 예술가는 태생이 NFT, 그리고 내 인생이 최고인 우리들은 태생이 예술가다. 개념미술가 존 발데사리 John Baldessari, 1931~2020가 조금씩 몸을 움직이며 "난 지금 예술하고 있어! am making art" 라고 되뇌었던 퍼포먼스 아트 1971처럼 오늘날, 내 일도 나만의 NFT를 남발하자. 최소한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마당에 혹시나 사회문화적인 의의까지 담보된다면, 즉 세상이 이를 반긴다면 뭐, 좋아. 눈썹 짙은 분! 미소 씨익!

글 임성빈 성신여대 서양화과 교수  
국내외 여러 기관에서 미술 작품 활동을 활발히 전개 중이다. 현재 성신여자대학교 서양화과 교수로 재직하며 미술 교육과 예술 연구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자신만의 예술적인 통찰을 다양한 분야와의 연계를 통해 심화, 확장된 글쓰기를 지속하고 있다. www.sangbinim.com